차준희 교수의 예레미야의 영성을 찾아서
4강 고독의 영성

1.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렘 12:1)

예레미야 12:1-6은 예레미야의 두 번째 고백에 해당되는 본문이다. 여기서 예언자는 먼저 자신이 하나님과 변론할 때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관이시다"라고 고백한다(렘 12:1a). 그리고 바로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렘 12:1b)라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는다. "변론하다/쟁변하다"(히_리브)라는 단어는 법정용어라는 점과 또한 질문의 내용으로 보아 이는 불평의 수준을 넘어서 따지고 고소하는 것이다. 예레미야의 불평은 시시비비를 가리는 고소의 단계에 이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예언자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께 "불평"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고소"하는 것이다. 여기서 제기된 의인의 불행과 악인의 행복이라는 수수께끼 같은 현실적인 문제는 구약성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주제이다.

> "12)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 13)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시 73:12-13; 참조. 욥 21:7-15; 말 3:14-15).

그런데 이런 주제는 구약성서의 예언서에서 예언자로서는 예레미야가 처음으로 제시한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으시고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도록 해 주셨음을 지적하고 있다(렘 12:2a). 이러한 나무 이미지는 구약성서에서 야웨와 그의 율법을 제대로 신뢰하는 자를 가리킬 때 곧잘 사용된다.

> "7) 무릇 야웨를 의지하며
> 야웨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 8)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 더위가 울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렘 17:7-8: 참조. 시 1:1-3).

그러나 여기서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늘 하나님을 내세우지만, 마음 곧 중심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다(렘 12:2b). 인간인 예레미야가 보아도 그들은 경건한 체하는 것이지 본심은 그렇지 않다. 입술만 경건한 것이다. 그런데 인간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경건 가면으로 가려진 본 모습을 모르실 리가 없지 않은가!

뒤이어 탄원시의 주요한 요소인 무죄선언이 나온다.

> “야웨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렘 12:3a).

예레미야가 보기에 처벌받아 마땅한 악한 자들은 처벌받지 않고 오히려 고난 받는 쪽은 하나님에 의하여 부름 받았으며 또한 하나님의 충실한 종이었던 예레미야 자신이었다(렘 11:21). 그는 악인을 처벌해 달라는 간구로 그의 기도를 마감한다.

>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렘 12:3b).

여기에 덧붙여서 4절에서 그는 악인들의 악한 행실은 인간 상호간의 공동생활을 파손시킬 뿐만 아니라 온 땅의 자연 질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언급된 악인의 정체는 4b절에서 드디어 드러난다. 그들은 이 땅의 거민 즉 유다 백성이었다. 그들은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라고 은밀히 말하며 죄의식은커녕 오히려 악행을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전 8:11).

>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딛 1:16).

여기서 그들이 말하는 ‘그’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 사실 이 지칭의 대상은 예레미야와 하나님 둘 다 가능하다. 그러나 여기서는 후자의 것을 취한다. 즉 그들은 하나님이 인간의 감추어진 의도를 간파하시고, 스스로가 올바르게 행하신다는 점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들먹이지만 속으로는 하나님과 무관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사실 자신들이 악하고 패역한 삶을 살아도 별 탈 없이, 아니 오히려 더 잘 살고 있으니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이 부인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이처럼 악인이 형통해지는 현실은 예레미야에게 쉽게 이해될 수 없는 점이다. 여기서 예레미야가 고민하는 것은 악인의 불의한 행위가 아니고, 악인이 형통해지도록 방치하는 의롭지 못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통치방식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어찌 한 두 번인가.

> “8)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웨의 말씀이니라.
> 9)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사 55:8-9).

사실 알고 보면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지 않은가. 사실 공부를 할수록 아는 것이 쌓이는 기쁨보다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다는 사실을 깨닫고 좌절할 때가 종종 있다.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신비 앞에서 언제나 새롭게 배워야 하는 영원한 ‘학생’에 불과하다. 인생은 학교이다. 태어나면서 인생학교에 입학하고, 죽을 때 인생학교를 졸업하는 것이다. 따라서 배우기를 게을리 하거나 거부하면 죽는 일밖에 없다.

2. 하나님의 동문서답: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렘 12:5)

드디어 하나님의 첫 번째 대답이 떨어진다. 우선 그 대답을 들어보자.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서는 어찌하겠느냐”(렘 12:5).

여기서 “강물이 넘칠 때”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흔히 ‘숲 속으로’라는 말로 옮겨진다. 요단 강가의 숲에는 사자들이 숨어 있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가? 악한 자들을 처벌할 것이라는 예레미야 11:21-23의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대답이 전혀 아니다. 이 대답은 참으로 이례적이어서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오늘의 우리도 당황스럽게 한다.

예레미야의 진지한 질문은 하나님의 동문서답(東問西答)에 의해서 완전히 무시당하고 만 격이다. 이는 사실 “경고조의 책망”에 해당된다. 예레미야의 현 상황은 뛰어 다니는 말(馬)도 아니고 걸어 다니는 보병과 경주하고 있으며, 사자가 득실거리는 요단의 수풀도 아니고(렘 49:19; 50:44) 평화스러운 땅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이는 마치 “본 게임도 아니고 예선 게임 아니 몸을 푸는 연습단계에서 벌써 지쳐버렸느냐”하는 질책이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앞으로 감수해야 할 고통에 비하면 지금의 고통은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처사가 옳은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것인지를 따지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졸지에 다른 방향으로 향하게 된다. 갑자기 ‘복종의 문제’가 이슈로 떠오른 것이다. 하나님의 대답 즉 하나님의 유일한 요구는 인간적인 이해를 초월하는 ‘보다 철저한 복종’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게도 여기서 멈춘다. 야속할 정도이다. 인간적인 이해를 포기한 복종이 가져다줄 유익에 대하여는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다.

아마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질책에 그만 압도당하였을 것이다. 마치 욥이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압도되어 침묵하였듯이 말이다(욥 40:3-5; 42:1-6). 이때 하나님의 대답에 대하여 예레미야가 어떻게 반문했는지는 더 이상 언급되지 않는다. 아마도 이후 그의 생애를 볼 때, 그는 하나님의 촉구에 복종하여 그 어려운 예언직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간 것으로 볼 수 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고난을 소화하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과소평가하기 쉽다.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시험을 주신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 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 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전 10:13).

사람들은 대부분 태양이 빛나고 모든 것이 잘되어 갈 때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기가 쉽다. 순풍에 돋을 단 듯이 인생이 순항하며 행복하면 찬송이 저절로 터져 나온다. 그러나 구름이 끼고 비가 오는 날이 오기도 한다. 우리가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도 없다.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한다. 이렇게 신앙의 회의에 부닥치고 삶의 방향감각을 상실할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계속 믿음을 지켜갈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예레미야처럼.

3. 그래도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네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렘 12:6)

하나님의 두 번째 대답은 질책을 넘어서 경고에 이른다.

"네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네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네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렘 12:6).

예레미야의 고통은 '외적인 요인'인 타인과의 갈등과 위험한 주변 환경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가족 내에서도 지속된다. 밖에서 받은 온갖 스트레스와 수모를 포근하게 이해해 주고 감싸 안아 주고 풀어주어야 할 안식처의 가족들도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예화: 가족의 소중함. 가족은 희망의 원천이고 힘의 원천이다. 명태자나 좌절을 경험한 사람들도 가족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제기하는 경우가 수없이 많다. 가족은 그렇게 소중한 것이다.

사실 예레미야는 모든 사람들의 저주거리가 되어야 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 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마는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렘 15:10).

예레미야가 당하는 따돌림과 저주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의 친한 친구들마저도 그를 버리고 공격하였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렘 20:10).

예레미야는 온갖 고통을 철저하게 홀로 견뎌 내야만 했다.

사회와 가족 그리고 친구들과의 신뢰할 만한 교제와 필요한 도움이 완전히 차단된 고독한 삶만이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러면 어쩌란 말인가. 그 누구도 신뢰할 수 없다면 누구를 믿고 살란 말인가! 하나님의 대답은 분명하다.

"사람들이 아니다. 네 하나님인 나를 믿어라. 오직 나만을!"

사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사랑과 사귐의 대상'일 뿐이다.

"3)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4)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5)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시 146:3-5)

예레미야가 이제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밖에 없다. 고향(지연의 보호막)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혈연의 보호막)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향하는 아브라함,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에 남은 삶을 맡겼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창 12:1).

아브라함은 인간의 보호막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하나님 한 분과만 함께하는 삶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단둘만 있는 고독의 자리를 거리끼지 않는다. 홀로 있어 보이는 고독의 자리가 홀로가 아님을 알기 때문이다.

나가는 말

인간의 보호막에서 떨어져 나와 하나님 앞에 고독하게 홀로 서 있어 본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맛볼 수 있다. 고독의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진다. 이는 '하나님의 보호막'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실 예레미야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옆에는 하나님이 늘 계셨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당신의 사람의 옆을 떠나신 적이 없으시다. 허울뿐인 인간의 울타

리를 벗어 던지자 강력한 하나님의 울타리가 그의 둘레를 감싸고 돈 것이다.

>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욥 1:10).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절대 고독체험을 통하여 인간이 홀로 있으면서도 절대적인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느끼는 ‘고독의 영성’을 가르치신다.

예레미야는 지금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제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라고 탄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 그가 사람과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영성을 소유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다. 예레미야를 완전히 고독으로 밀어 넣으면서도 그에게서 단 한 순간도 떠나지 않으셨던 하나님! 그분의 존재가 드디어 드러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다 떠나고 모든 것이 다 꺾여서 철저히 홀로 된 상태, 이것이 바로 고독의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우리가 이 고독의 상태에 놓여있을 때 혼자가 아니라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화이트헤드(A. N. Whitehead, 1861-1947) 같은 철학자는 ‘고독’이야말로 ‘종교성’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쉽게 풀이하면,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혼자가 되었을 때 자기 존재의 바탕이신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고 싶어 하는 갈망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제대로, 더욱 확실히 볼 수 있다. 이때 우리가 배우는 것이, 곧 ‘고독의 영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를 ‘고독의 영을 지닌 예언자’라고 한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그것이 물질이건, 권력이건, 명예이건 간)로부터 ‘내려놓음’이 시작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접수하시고 결제의 답안을 주신다. ‘인생의 가지치기’는 우리에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기도 하다. 고독의 영성으로 무장하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하고 만족할 수 있다. 그 경지에 도달하면 우리 주변의모든 것들은 덤으로 주어진 선물이다. 선물은 욕구의 대상이 아니다. 그저 감사의 대상일 뿐이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감사의 선물이다. 고독은 비움의 자리가 아니라 채움의 자리이다.